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찬양인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원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8 충원교회**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주간 충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성령의 증인, 믿음의 가정

다음 주일(11월)

오순절 성령강림주일 및

어린이 · 어버이주일

(가족연합예배 2·3부)



오순절 성령강림주일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던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행 2:1~4)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것은 원래 구약의 '칠칠절' 절기였던 이날에 성령이 강림하였기 때문입니다. (레 23:15~17) 베드로는 성령강림이 어떤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종말론적 은혜임을 증거했습니다. (행 2:16~21)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구원이 승전하신 예수님을 통해 부어 주신 성령의 임재로 각 사람에게 실재로 성취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일이 오순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오순절 성령강림으로 실현된 것입니다. 성령강림을 통해서 예수님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 14:18)

무엇보다도 오순절 성령강림이 중요한 이유는 교회의 탄생과 세계 선교의 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핍박은 여전했지만 성령충만한 성도들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교회를 이루었고, 복음을 전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따라서 오순절 성령강림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은 성령의 권능으로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행 1:8)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오직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 · 어버이주일과 함께 드려지는 성령강림주일만큼 작은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다락방을 내어준 마가의 가정이 되어 기도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일 2·3부예배는 가족연합예배로 드리니 온 가족이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와 성령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성령의 증인과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다음 주일 영아·유아·유치·고등부는 자체예배

*오늘 제4차 성찬식(1~5부예배 시)

말씀과 삶 5

참 신자의 삶 (히브리서 10:19~25)

영원한 죽음이 예정되어 있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아 거룩하게 되었다.

다. (히 10:7,10) 그래서 원래는 복잡한 제사방법에 따라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지만 십자가의 은총으로 이제 더 이상의 제사는 필요없게 되었다. (히 10:17~18) 대제사장도 목숨을 걸고 일 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었던 지성소의 휘장이 십자가의 은총으로 찢어지고 이제 보혈로 거둔단 신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

신자의 특권 "그러므로 형제들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 10:19~20) 보혈을 통해서 열린 "새로운 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신자에게 있다. 이것이 진실로 기적이지 아닌가! 창조주가 흘린 보혈을 통하여 열린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특권이며 기적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신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신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히 10:22)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자. 어린 아이처럼 단순하게 주님을 믿고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면 된다. (골 2:18) 오직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자. (약 4:8) 아브라함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았다. 심지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믿음으로 순종하였다. 또한 그와 같은 온전한 믿음은 아들 이삭에게도 있었다. 이삭은 백 살이 훨씬 넘은 아버지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였다. 이같은 신실한 믿음이 신자인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 이 믿음의 기초는 보혈을 통해서만 나온다. 십자가에 기초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소망을 굳게 잡자 참 신자는 소망을 굳게 붙든다. (히 10:23) 하나님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자에게 소망을 주신다. 이 소망에 대한 약속은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되었기에 변함이 없다. 따라서 신자인 우리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고전 15:58) 우리를 둘러싼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지만 그대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굳게 서서 종의 땅에 매지 말자. (갈 5:1)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요일 2:15~16)이 아닌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은혜를 소망하자. (벧전 1:13)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신자인 우리는 오직 은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완성된 소망을 굳게 잡자.

서로 격려하자 참 신자는 사랑으로 풍성하다. (히 10:24)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덮어 주어야 한다. (요 13:34~35)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 15:12) 사랑이 없는 사랑에게는 그리스도가 없으며 보혈의 은총도 없다. 인간이 주는 사랑은 변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에 기초한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롬 12:9) 따라서 신자인 우리는 보혈을 통해서 모든 사랑과 사랑을 바라보아야 한다. 미워하고 정죄하기 보다는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용서하고 격려하자.

계속해서 모이자 참 신자는 모이기에 힘쓴다. (히 10:25) 믿음, 소망, 사랑으로 풍성한 신자들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한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에 힘써야 한다. 이 교제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인 회당에서 이사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다. (눅 4:16)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스도를 기념해야 한다. (행 2:46)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터 위에서 신자들은 계속 모여야 한다.

참 신자의 삶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풍성하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을 믿을 때에만 가능하다. 오직 보혈의 은총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굳게 잡을 수 있다. 또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참 신자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들의 모임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로 넘칠 것이다. 아멘.

김성관 위임목사

WHAT KIND OF PEOPLE WERE AT PENTECOST?

⁽¹⁾When the day of Pentecost had come, they were all together in one place. ⁽²⁾And suddenly there came from heaven a noise like a violent, rushing wind, and it filled the whole house where they were sitting.

⁽³⁾And there appeared to them tongues as of fire distributing themselves, and they rested on each one of them.

⁽⁴⁾And they were al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began to speak with other tongues, as the Spirit was giving them utterance.

(Acts 2:1~4)

When the Day of Pentecost finally arrived, about one hundred and twenty people gathered together in the upper room of Mark's home. Jesus' mother, brothers, and eleven disciples were among this group.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the Holy Spirit came down from heaven and indwelt all one hundred and twenty people. Prior to this spectacular event, the Holy Spirit only visited select individuals in our history. This was a brand new phenomenon that had never happened before. What kind of people were the first to be filled by the Holy Spirit?

The people at Pentecost had been with Jesus. These men and women thought Jesus was the Messiah and followed His ministry. After about three and a half years, they turned from Him and He was crucified. When He resurrected, they were surprised. He appeared to them in resurrection form for a period of forty days, during which time He spoke to them about the things concerning the kingdom of God. (Acts 1:3) He also told them "not to leave Jerusalem, but to wait for what the Father had promised, 'Which,' He said, 'you heard of from Me; for John baptized with water, but you will be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not many days from now.'" (Acts 1:4~5) They experienced the fulfillment of this promise ten days after they witnessed His ascension. So, from the time of Jesus' death to the time of the coming of the Holy Spirit was fifty days. These special one hundred and twenty people had all kinds of experiences with Jesus. They saw His ministry, betrayal, crucifixion, and ascension. They heard His departing words toward heaven, "All authority has been given to Me in heaven and on earth.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at I commanded you; and lo,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age." (Mt. 28:18~20)

The people at Pentecost continually devoted themselves to prayer. After Jesus ascended, they listened to His command to wait for their baptism with the Holy Spirit. They gathered in Mark's home and with "one mind were continually devoting themselves to prayer." (Acts 1:14) They prayed inside for ten days! The doors of Mark's home were closed because outside there still remained much hostility and violence toward Jesus' followers. The lives of all those who entered the upper room were endangered. They needed power. They needed the Holy Spirit to come down as Jesus promised. In one accord they prayed.

The people at Pentecost received Jesus' promise. Jesus asked His disciples not to leave Jerusalem, but to wait for the promised Holy Spirit. Those who listened and obeyed received His promise. Today's Bible verses say, "And suddenly there came from heaven a

noise like a violent rushing wind, and it filled the whole house where they were sitting. And there appeared to them tongues as of fire distributing themselves, and they rested on each one of them. And they were al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began to speak with other tongues, as the Spirit was giving them utterance." (vv. 2~4) No one had ever experienced this supernatural event. The upper room people walked where no one had gone before, but where a multitude would follow by faith. Where there was once doubt, uncertainty, and human failure now there was evidence, certainty, and spiritual power. The Holy Spirit opened their hearts to God's love.

The people at Pentecost became spiritual leaders. The central purpose of the Holy Spirit is to endow believers with power for evangelism. Peter stood up in the Temple and preached like never before, telling the Jews with confidence, "Therefore let all the house of Israel know for certain that God has made Him both Lord and Christ—this Jesus whom you crucified." (Acts 2:36) He said to them, "Repent, and each of you be baptiz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and you will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Spirit." (Acts 2:38) "So, then, those who had received his word were baptized; and that day there were added about three thousand souls..... Day by day continuing with one mind in the temple, and breaking bread from house to house, they were taking their meals together with gladness and sincerity of heart, praising God and having favor with all the people. And the Lord was adding to their number day by day those who were being saved." (Acts 2:41, 46~47) A revival began at Pentecost, and its effects are still being felt today.

My dear friend, God fulfilled His prophecy on Pentecost. Peter preached, "This Jesus God raised up again, to which we are all witnesses. Therefore having been exalted to the right hand of God, and having received from the Father the promise of the Holy Spirit, He has poured forth this which you both see and hear." (Acts 2:32~33) God gives us His Holy Spirit because He wants us to have the power to explain to others that Jesus Christ is our Savior. We are now living in the 21st century. The Holy Spirit comes to all who believe in Jesus Christ and gives them the same opportunities as He did the first receivers. Have you been with Jesus? Are you continually devoting yourself to prayer? Have you received what God has promised? Have you become a strong spiritual leader? Through your life God's purpose is accomplished. I pray with what little time you have that you make every moment count for Jesus. Please deny yourself, take your cross, and follow Jesus through the power of His Holy Spirit. Amen. 🙏

오순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 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②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③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④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1~4)



김성완 목사

마침내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약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 그리고 열한 명의 제자들도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와 그곳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 모두에게 임재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성령님은 오직 선택받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개인적으로 찾아오셨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현상이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던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오순절에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라 다녔습니다. 그러나 삼 년 반의 시간이 흐른 뒤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으며 결국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삼 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행 1:3) 또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겠느니라” (행 1:4~5)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째 되던 날 그들은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부터 성령강림까지는 50일의 간격이 있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온갖 일들을 겪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 배신당 하심, 십자가, 승천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18~20)

전심으로 기도하였다

오순절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성령세례를 기다렸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행 1:14) 집안에서 열흘 동안 기도했던 것입니다! 마가의 집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예수님의 추종자들에 대한 거센 적개심과 탄압으로 살기가 등등했기 때문입니다. 다락방에 모여 있던 모든 사람들의 목숨은 위태로웠습니다. 그들에게는 권능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다

오순절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

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본문말씀은 이것을 자세히 기록하였습니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2~4절) 이것은 지금까지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초자연적 사건이었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이전에 아무도 가지 않았던 곳, 그러나 훗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가게 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한때 의심과 불확신, 실패로 위축되어 있었던 제자들은 이제 증거와 확신, 영적 능력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그들의 마음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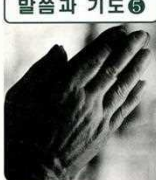
영적 지도자들이 되었다

오순절에 있었던 사람들은 영적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성령강림의 중요한 목적은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확신에 찬 모습으로 성전에 서서 유대인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겠느니라” (행 2:36)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했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행 2:38)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행 2:41, 46~47) 부흥은 오순절에 시작되었고 오늘날에도 그 영향력은 여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순절에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외쳤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하나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행 2:32~33) 하나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처음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그랬듯이 모든 신자들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십니까? 전심으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까?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순간을 결산할 시간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

말씀과 기도 ⑤

가족에 대한 믿음의 간구 (마태복음 15:21-28)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마 15:21) 그곳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로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서 가나안 여인을 만났다. 이 여인은 자신의 가족이 가지고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 놓았다. 그녀는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믿음의 간구를 하였다.

가장 귀한 자식이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문제가 아닌 가족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 간청했다.(마 15:22; 막 7:25) 이 문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것은 오직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그녀는 진실로 믿었기에 예수님께 나아왔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어떠한가? 가나안 여인의 딸을 괴롭혔던 악한 사탄은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을 가장 큰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보혈의 능력만이 악한 사탄의 사슬을 끊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참 자유를 줄 것이다.

주님은 대답을, 응답을 늦추고 계시다

간절히 호소하는 가나안 여인의 외침에 예수님은 곧바로 응답하지 않으셨다.(마 15:23) 그럼에도 가나안 여인은 오직 주님만이 자신의 딸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었다.(고전 10:4)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이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초급하게 주님께 보낸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이다.(고전 10:11) 모든 일은 주님께서 하신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신자들을 통해서 세워진다. 우리의 가정도 믿음으로 세워져야 한다. 양육하기 어렵다고 자녀들을 세상 가운데 방치해서는 안 된다.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께 믿음의 간구를 드리고 믿음으로 기다리자. 나머지 일은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

제자들과 그리스도인의 논쟁

여인의 호소에 제자들은 귀찮아했다.(마 15:23) 제자들은 가나안 여인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보지 않았다. 이 모습은 예리고 성을 지날 때 만난 한 거지 소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눅 18:38-39) 이처럼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건만 제자들과 우리들의 모습은 한 영혼을 귀하게 보지 못하는 열적 소경이었다. 가나안 여인을 빨리 보내려는 제자들의 뜻은 분명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

과연 이 여인의 믿음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마 15:24)고 하였다. 이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의 냉랭한 태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는 예수님께 더욱 매달렸다.(마 15:25,27) 가나안 여인은 겸손한 믿음, 갈 곳을 알고 있었던 믿음,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였다. 이 믿음이 우리의 가정을 세울 수 있다. 이 믿음으로만 주님의 교회는 세워질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큰 믿음이 아니다.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이다.(마 17:20) 땅에 떨어져 죽는 밀알 같은 믿음이다.(요 12:24)

여인에게 대답을 주신다.

간절한 믿음으로 간구했던 여인에게 예수님은 응답하셨다.(마 15:28) 이 여인의 간구는 회회를 위한 기도라 아니었다.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기도도 아니었다. 단순히 가족을 위한 기도였다. 이 기도에도 예수님은 응답하여 주셨다. 가족을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드려라.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가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자. 믿음의 기도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요일 5:4-5)

가나안 여인의 가족에게 일어난 기적은 믿음의 가족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자. 세상적인 형통함으로 넘치는 가족이 아니라 가족의 영혼이 보혈의 은총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자. 그 다음 일은 당신의 때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내 믿음에 십자가가 있는가? 내 삶에 자기부인이 있는가?'를 살피자. 이제 곧 은 땅에 있을 성령의 역사를 볼 것이다. 가족에 대한 믿음의 간구로 거둔 은총의 자녀들을 통해서 은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아멘.

김성관 위임목사

갓난 아기를 같이 순전한 복음을 사랑하는 영아부



김성훈(장로, 영아부장)

영아부는 아기(0~2세)들을 위한 교회학교입니다. 가장 중요한 영아의 시기에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복음을 배우고 듣게 함으로 천국일꾼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주님의 말씀을 방해삼고 주님이 주실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영아부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들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오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골 1:9)

영아부는 주일 오전 9시, 11시에 제1교육관 110호에서 두 번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령한 예배를 위해서 교사 37명 전원은 예배 시간 전에 영적으로 온전히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준비되면 예배 15분 전부터 찬양과 함께 예배가 시작됩니다. 예배 후에는 반별로 성경공부를 하는데 반을 맡은 선생님들은 아기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도

로 준비한 시청각자료를 통하여 복음을 가르칩니다. 이와 같이 영아들을 복음 안에서 천국 일꾼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선생님들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오직 성령님께 의지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봄과 가을에는 새친구 초청집회를 통해서 전도에 힘쓰며, 말씀과 기도는 물론 가족찬양 및 부모님들의 성경이야기와 신앙간증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삼상 2:26) 처음에는 누워 있는 아기와 기어 다니는 아기와 아장아장 걷는 아기들이 과연 말씀을 듣고 알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에 귀 기울이고 손뭉치며 찬양하고, 영당아이를 들먹이며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고 싶어 뱅글 뱅글 웃는 그 뒤에는 모습과 언니 오빠와 함께 주님께 찬양을 드릴 때에는 마치 천사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모습이 연상되면서 우리도 어린이와 같이 순전함으로 늘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영아들을 둔 총현의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영아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기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며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것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할 때 그것을 먹음으로 영육 간에 양식이 되어서 육신도 성장할 뿐 아니라 영혼을 풍성히 살게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려서부터 듣고 알아 감으로 그 마음에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도와 주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참 생명의 복인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각 가정에 충만하리라 믿습니다. "갓난 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벧전 2:2)

반을 맡은 선생님들은 아기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도

그 한 번의 전도로

우주만물과 우리를 지고이고 정교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선교단 훈련과정을 통해 값진 기도를 하게 하셨다. 세상의 권세와 사탄의 방해가 집요하게 떠나지 않고, 나의 건강과 여건들을 위협하고 신앙을 무너뜨리려 하였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놓지 않으셨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품었던 욕심, 나의 의를 십자가 앞에 내려 놓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 16:24)는 말씀을 붙들게 하셨다. 이처럼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은 확실히 응답하시고 증거들을 보여주셨다.

선교현장에서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셨다. 공안을 만났을 때는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 전도지 없이 그들 앞에 서서 어눌한 현지어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입술에서 “아멘!”을 고백하게 하셨다. 특히 그 중 한 사람을 세우셔서 우리의 선교를 돕게 하셨다.

그러나 매순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연약한 나는 두려움에 항상 흔들리기 일쑤였다. 그때마다 나는 회개하며 기도하였다. 기도 하는 중에 나의 마음을 울리는 주님의 음성도 느꼈다. “순자야! 너 초등학교 3학년 때 짝꿍 윤희가 예배당에 가면 사망 준다고 해서 따라가지 않았니? 그 한 번의 전도 말씀으로 지금 네가 나를 증거하기 위해 여기까지 오지 않았니? 너의 짝꿍이 네게 한 것처럼 네가 이웃에 꼭 한 번 뿌린 너의 씨앗을 내가 옥토로 갈아 훑날 내 증인으로 삼을 것이니 눈물을 거두어라.” 이 주님의 음성에서 “아멘! 아멘!”을 연신 고백하며 눈물을 닦았다. 푸른 눈발 너머 멀리 보이는 마음마다 머지 않아 회개가 세워질 것을 믿었다.

이순자(집사, 24교구 5지역팀)

무너진 여리고 성

선교를 할 때마다 주님은 당신의 방법대로 모든 일을 하신다. 선교를 떠나기 전, 특별히 이번 선교훈련이 강화되어 너무 힘들게 생각되었던 일들이 그저 교회방학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하셨다. 우리가 갔던 그곳은 십자가로 영적 무장이 되지 않고는 사탄의 꾀계에 넘어질 수 밖에 없는 강한 영적 도전에 있었고, 기도하지 않고는 담대히 그들에게 전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을 깨닫게 하는 곳이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방법과 계획이 바뀌어져 주님은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운전기사와 우리의 눈을 가리면서까지 외국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경찰에게 붙잡혀 어려움을 처했을 때, 듣는 전사를 보내어 우리를 보호하셨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셨다. 가는 곳마다 여리고 성은 무너졌고, 은혜의 단비를 기다리는 옥토였다. 우리는 기쁨으로 마음껏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돌아올 때 더 전하지 못함을 아쉬워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생각일 뿐 우리의 할 일은 거기까지였다. 특히 마지막 날 우리는 청소년들의 탁발집회를 통해 고모라 성과 같은 실상을 보았고, 우리는 울며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기를 또 그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이제 그곳을 마음에 품고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이다.

배영순(권사, 21교구 2지역팀)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3개 팀)

기 간	팀	팀 장
5월 9일(금)~5월 16일(금)	4교구 2지역	문영규
5월 9일(금)~5월 17일(토)	7교구 6지역	한용택
5월 9일(금)~5월 17일(토)	7교구 3지역	장길남

가장 가슴 벅차고 긴장되며 기쁜 순간, 전도

지난 주일 찬양예배 시에 내가 전도했던 한 자매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설레었는지 또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녀는 아마도 잘 모를 겁니다. 그녀는 2007년 1월, 십자가 끝에 교회에 등록을 해서 새가족양육부를 은혜 가운데 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선교를 마음으로 품고 청년1부에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입술과 삶 속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고백이 나올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매주일 만나게 되면 주중에 있었던 주님의 은혜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질문도 많아졌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변화에 그저 감사와 놀라웠습니다.

이처럼 저는 전도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 앞에서 나의 작은 것조차 부인하지 못하는 이 죄인에게 전도를 통해서 주님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설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구원받게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알도록 전하게 하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도를 전할 뿐인데 우리 주님이 사람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고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시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제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그 영혼이 믿고 구원받게 됨을 생각하면 저 역시 설렘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순간이 예민한 주의 음성에서 귀 기울이고 가장 가슴 벅차고 긴장되며 기쁜 순간입니다. 주님과 말씀으로 충만하여 제 영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나의 힘으로 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깨닫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행 20:26~27) 이 말씀이 바로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김근배(집사, 1교구)



예수님을 전하고 나면 어느 새

“너 어떻게 거기 있지……?” 처음 강남역에서 전도할 당시 나 자신한테 물었던 말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았느니라”(롬 10:17) 예수님은 구원의 진정한 의미조차 모르던 나를 말씀으로 만나 주셨다. 그리고 지금까지 겪어온 어려운 일들이 주님의 크신 사랑의 손길임을 알게 하시며 힘든 마음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을 때 자유함을 주셨다. 구원의 확신으로 세상을 향한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어 가게 되었고 전도와 선교로 증진된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게 되었다.

충현전도대 훈련 후 나간 강남역 전도는 한동안 어색했지만 말씀으로 뭉친 팀원 간의 기도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격정거리가 있을 때라도 수요일마다 강남역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나면 어느 새, 문제에서 벗어나 있는 나를 보게 되었다. 전도자의 사명을 느낄수록 나의 것을 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의 사랑과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 가심을 느낀다. 주님은 예비하신 사람들과의 만남의 기쁨도 주시지만 사람들의 거절과 무시보다 더 힘든 양육의 책임도 주신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생명이 있기에 놀라운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정말로 주님은 전도 대상자였던 한 가정이 십자가의 증거자로 살아갈 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지켜볼 수 있는 큰 기쁨도 주셨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내에게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남을 통해 복음에 합당한 자로 자라게 하실 것과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중심의 관계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이미주(집사, 14교구)

정말 놀라운 변화!



저는 **총천교회**에 등록을 했을 때 저는 마음이 몹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원래 우리 가족은 남편과 딸 둘, 이렇게 네 식구였습니다. 그런데 딸들이 시집을 가고 남편과 단 둘이 살다가 남편이 간경화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 혼자 생활하면서 눈물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았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고 외로움과 쓸쓸함에 세상 살기가 싫어졌습니다. 목적이 없는 삶이 아무런 의미도, 재미도 없고 죽고만 싶었습니다. 나의 인생이 없어진 것입니다.

저는 몸 상태가 안 좋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를 교회로 인도한 제부와 동생에게 "나를 데 음복하게 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고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닌, 나의 생각대로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새가족양육회에서 교육받는 6개월 동안 조금씩 나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느꼈고,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영적 무지로 깨어졌습니다. 지금은 교회에 가는 날이면 일찍 준비하여 교회로 향합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 지역장님, 권사님, 간사님, 제 주위에 있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가 철저히 나를 돌보아 주셔서 저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선교를 갈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이번엔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팀 훈련을 하는 중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도 하고 제가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만해도 밖에서 일을 보고 집에 들어오면 한참을 누워 있어야 할 정도였는데 이제는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어 주셔서 감사하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참 이상하다 왜 그러지?' 하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지금에서야 제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먼저 주시고 움직여 주셨습니다. 희망과 기쁨도 주시고 삶의 목적도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그 은혜가 정말 크고 감사합니다. 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수 없는 많은 신앙 친구들을 만나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해 주시고, 열심히 주님만을 섬기며 살라고 다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양미숙(성도, 18교구)

은혜충만 구역예배

우리 구역은 해외에 있거나 직장 생활을 하는 식구들이 많아 대략 5~6가정이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구역식구들 가운데는 칠십이 넘으신 분들과 유아를 둔 가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연약한 지체들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만은 그 어떤 구역보다 뜨겁고 감합니다. 구역교제를 공부하며 서로 은혜를 나눌 때마다 "주여! 주여!" 하는 소리와 "아멘! 아멘!" 하며 말씀에 은혜 받고 동참하시는 모습에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삶을 간증하실 때에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였음을 느낄 수 있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로는 서로의 삶의 모습을 보며 더욱 은혜 받고 새로운 다짐과 힘을 얻게 됩니다.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 중보기도의 힘을 느낄 수 있고, 기도하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간증을 들을 때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이렇게 은혜로 충만한 구역식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말씀을 나눌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가정 한 가정이 주님의 소중한 지체로 일꾼임을 생각할 때 서로 더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윤영애(집사, 23교구)

영의 찬송을 준비하며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시 149:1) 찬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의 고백이 아닐까 싶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히 11:6)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찬양을 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 요즘 교구찬양 연습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어린이들부터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드리는 찬양의 입술이 곧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이다. 아이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순수한 믿음으로 찬송할 때 그들의 맑은 영혼의 소리에 가슴 뛰하여 눈시울이 붉어진다.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

어느 새 가사를 다 외우고 지휘하시는 집사님을 바라보며 부르는 어린 아이들의 찬양소리가 내 마음에 감사의 고백으로 나온다. "주님 저 아이들의 영혼에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서 저들의 입술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소서," 그런 아이들의 맑은 영혼의 찬송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깊은 믿음을 통해 나오는 찬송은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감사의 찬송이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시 146:2)

지금까지도 주님을 향해 찬양의 입술로 소리를 높였고 천국을 향해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간구하던 어르신들이 더욱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우리는 믿음으로 서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오직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다. 완벽한 찬송을 내는 찬양이 아닐지라도 예수님을 향해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영의 찬송을 주님은 더 기뻐하실 것이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혜경(집사, 16교구)

찬양으로 하나가 되었던 은혜

우리 영혼의 햇빛 되신 예수님! 그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교구찬양 준비를 위한 심부름으로 부름을 받고 맨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타교구보다 잘해서 뭔가 보여주어야 할텐데....."였다. 이를 위해서 우선 의적으로 잘 보이도록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하고 멋진 음악을 만들기 위하여 오케스트라를 구성하여 훌륭한 반주가 되도록 해야 하고 어린이부터 어르신에 이르는 전 연령층이 모여 멋진 화음으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다는 다짐하며 교구찬양을 준비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세상적인 접근인가를 깨닫는 데는 그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연습에 참여하는 인원의 제한, 열악한 연습장소, 소리가 나오지 않는 어린이들, 고음볼가의 어르신들, 오케스트라 구성의 어려움 등이 있었다.

한 주, 두 주 시간이 지나기면서 교구찬양 연습을 통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교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십자가 군병들 복을 갑주 입고, 주 예수 앞에 나오면 큰 능력 주시리," 모든 교구 식구들이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임을 깨닫게 되었다. 음정이 좀 불안해도, 박자가 맞지 않아도, 고음이 나오지 않아도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감사할 뿐이다. 그렇다. 주님께서는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인원이면 충분함을 깨닫게 하셨다. 4부 화음으로 된 멋진 합창곡이 아니라 단음으로 부르더라도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이 주신 기쁨이 넘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충만한 찬양임을 깨닫게 하셨다. 또한 교구찬양 연습을 통해 성도 간의 교제의 장이 된 것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기 들고 앞서 나아가 군세에 세워라." 아멘.

유동호(인수집사, 10교구)

교회탐방 영유초중 도서실

예배 시간이 서로 달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매주일 1~5부의 주일예배 그리고 찬양예배가 있다. 23개 교회학교의 예배와 모임, 25개 교구모임 등 하루 종일 크고 작은 예배와 모임으로 교회는 생동감이 넘친다. 그런데 부모들과 자녀들의 예배나 모임시간이 어긋날 경우 마땅히 갈 곳이 없어 고민하는 일이 종종 있다. 이제 더 고민할 필요가 없다.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한 제교육관 7층에 마련된 영유초중 도서실이 있기 때문이다.

영유초중 도서실은?

영어에서부터 중학생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도서실입니다. 선교관 4층에 있는 도서실은 주로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이곳에는 교회학교 학생들이 중심입니다. (석영식 장로, 부장) 제1교육관 7층에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이용하여 올라요 세요. (함화자 권사, 부장) 영어와 도서실은 어린 자녀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북 바닥에 깔아 놓았습니다. 초중 도서실은 자체를 바로 잡아 주도록 좋은 책상과 의자가 마련되어 있지요. (김종훈 안수집사, 부장) 영어상에서는 매주일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그 외 시기에는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많은 영상 자료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도 연맹에 맞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순란 전도사, 지도)

영유초중 도서실을 이용할 때 유의할 점?

영어와 도서실은 학부님과 동행할 때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함화자 권사) 초·중학생과 중학생들은 초중 도서실을 이용하면 되고, 영어와 도서실의 접점은 불가합니다. 학부님들은 전년 도서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안수집사) 책을 먼저로 보다 보면 해운이 될 수 있습니다. 가끔씩 해운이 안 되도록 책을 깨끗하게 이용에 주시고, 음식물은 도서실 내로 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다. (채명혜 권사) 도서실 이용은 매주일 8:30~16:30입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세요. (함화자 권사)

영유초중 도서실의 어떤 점이 좋은가요?

아빠가 2부예배를 드리서서 갈 곳이 없었는데 도서실에 와서 책도 보고 비디오도 보니까 심심하지 않아서 매주 오요. (함화자, 초등부) 주은 겨울에는 어디에 있어야 할지 물어 여겨지기에 매주 오다녔어요. 그러다가 영유초중 도서실이 생긴 후부터는 항상 이곳으로 아이들을 보내요. 수고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려요. (김영미 집사) 성경만화도 좋고 성경만화도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것도 좋아요. (함화자, 소년부) 도서실이 생기기 전에는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과 함께 드려야 해서 집중이 되지 않았고, 부처님 오심에 가기 전에는 어디에 있어야 할지



각각이 있습니다. 이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손성애 집사)

가족 모두 각각 다른 예배 시간 때문에 고민이었는데 이제는 주말 아침이면 모두 일찍 도서실에 와서 성경도 읽고 책도 읽다가 각각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우리 가족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공간이 되었습니다. (김진영 집사)

도서실에 오면 성경에 관련된 책들이 많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오요 하구요. 한가할 때에도 책을 보면서 시간 보내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게시' 붙든 모두 친절하게 물어 주십니다. (박지훈, 초등3부)

집에 있는 성경이야기 책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책을 보면 성경 말씀을 쉽게 알 수 있어요. 교회 오면서 갈 싶어할 때도 있었는데 도서실에서 책을 읽다 보니 교회에 매일 오고 싶어졌고 생각했어요. 성경이야기가 재미있어서 하나님, 예수님과 더 많이 가까워질 것 같아요! (김지호, 유년부)

주요해서 좋아요. 책을 읽거나 시험기간에 공부하기 알맞아서 편리합니다. 그리고 책도 많아서 오래도록 책을 읽습니다. (박지훈, 초등2부)

영유초중 도서실에서 봉사하면서 받는 은혜와 기도 제목은?

양육에 아름다운 꽃들이 시냇을 꽃아 피어나고 온갖 나무들이 새싹이 돋아 시냇을 따뎀에 따라 푸르며 더듬을 볼 때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도서실에 많이 오 주님의 기쁘고 오요하신



뜻을 알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송정희 집사)

많은 어린이들이 도서실에 와서 많은 책을 대하면서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했으면 합니다. (채명혜 권사)

영원한 양식을 마련하기 위해 자녀들이 도서실의 책들을 통하여 더 많은 양식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김정희 집사)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이들이 말씀으로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도서실이란 아이들이 십자가를 붙들며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방편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정혜 집사)

아빠 엄마와 함께 도서실에 와서 책을 읽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은 책들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지혜롭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김종환 집사)

영유초중 도서실에는 3,237권의 도서와 426편의 영상 자료가 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모든 도서와 영상 자료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알고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매주일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한 이곳에 자녀들과 함께 오십시오.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소금도 떠나지 않게 하소서'(시 119:43)

(편진국)

내 영혼이 주를 찬양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아직도 철 없고 마음은 마냥 어린에 같지만한테 어느 새 지도 흔하 말하는 중년이 되었나 봅니다. 중년이라하면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할 힘과 열정도 많았지만 늙고 병들어 죽는 것에도 관심을 자를 가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 역시도 중년이 되니 병문안이나 장례식장 출입이 잦아졌고, "병상세례"나 "영혼구원"의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임종을 지켜보면서 큰 소리로 찬양해야 할을 절실히 느꼈고, 그때마다 자주 불렀던 찬양이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였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였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둔 그늘 해지나." 친정어머니와 시아버지, 친정오빠의 임종을 찬송과 기도로 지내면서 영적 전쟁이 있음을 몸소 깨달고, 그들을 대신해서 찬양을 힘껏 불러야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3절,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

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를 목 놓아 부르며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불러지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저처럼 모든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간증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까지 주님만 찬양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준애(집사, 아편 전일대)

선임 교역자 (1교구)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임원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강옥련 전도사 (1953. 1. 9.)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처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처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처	인도자
696	김영호	1	유년부		723	박현호	3	장년부	박정희(13)	750	최현희	7	대학부	이서훈(16)
697	최재현	17	고등부	이향선(17)	724	박영희	13	장년부	문정희(11)	751	백승우	9	대학부	이서훈(16)
698	최재현	23	장년부	남영희(18)	725	황선희	23	장년부	박정희(23)	752	박선진	20	소년부	김영준(18)
699	김영호	18	장년부	박정희(19)	726	이서훈	1	장년부	이성숙(1)	753	김영준	7	중등부	최정희(12)
700	최정희	9	장년부	박정희(18)	727	최정희	13	장년부	이성숙(1)	754	박정희	12	장년부	김영준(18)
701	최정희	8	장년부	박정희(18)	728	최정희	7	장년부	최정희(19)	755	박정희	12	장년부	박정희(12)
702	최정희	25	소년부	이성숙(1)	729	최정희	19	장년부	최정희(19)	756	최정희	24	소년부	김영준(18)
703	사지나	24	장년부	최정희(24)	730	나경호	9	중등부	남영희(18)	757	최정희	20	소년부	김영준(18)
704	최정희	20	장년부	최정희(18)	731	박정희	9	중등부	이성숙(22)	758	최정희	21	소년부	문정희(12)
705	나경호	20	장년부	안영준(20)	732	최정희	20	장년부	최정희(14)	759	최정희	10	소년부	김영준(10)
706	최정희	25	소년부	이성숙(1)	733	최정희	1	장년부	김영준(18)	760	최정희	10	장년부	최정희(10)
707	최정희	25	소년부	김영준(18)	734	최정희	19	장년부	문정희(16)	761	최정희	3	장년부	
708	최정희	25	소년부	최정희(18)	735	김영준	4	장년부	김영준(18)	762	최정희	11	장년부	이성숙(20)
709	최정희	11	장년부	오영준(18)	736	김영준	4	장년부	김영준(18)	763	최정희	11	장년부	이성숙(20)
710	최정희	11	장년부	최정희(18)	737	최정희	9	장년부	최정희(18)	764	최정희	21	장년부	최정희(21)
711	최정희	17	장년부	최정희(17)	738	최정희	9	장년부	최정희(18)	765	최정희	21	장년부	최정희(21)
712	최정희	11	장년부	최정희(18)	739	최정희	9	장년부	최정희(18)	766	최정희	13	장년부	최정희(13)
713	최정희	11	장년부	최정희(18)	740	최정희	9	장년부	최정희(18)	767	최정희	13	장년부	최정희(13)
714	최정희	11	장년부	최정희(18)	741	최정희	9	장년부	최정희(18)	768	최정희	13	장년부	최정희(13)
715	최정희	11	장년부	최정희(18)	742	최정희	9	장년부	최정희(18)	769	최정희	13	장년부	최정희(13)
716	최정희	23	장년부	최정희(23)	743	최정희	9	장년부	최정희(18)	770	최정희	25	소년부	김영준(18)
717	최정희	23	장년부	최정희(23)	744	최정희	9	장년부	최정희(18)	771	최정희	25	소년부	김영준(18)
718	최정희	23	장년부	최정희(23)	745	최정희	9	장년부	최정희(18)	772	최정희	25	소년부	김영준(18)
719	최정희	23	장년부	최정희(23)	746	최정희	9	장년부	최정희(18)	773	최정희	25	소년부	김영준(18)
720	최정희	23	장년부	최정희(23)	747	최정희	9	장년부	최정희(18)	774	최정희	25	소년부	김영준(18)
721	최정희	23	장년부	최정희(23)	748	최정희	9	장년부	최정희(18)	775	최정희	25	소년부	김영준(18)
722	최정희	23	장년부	최정희(23)	749	최정희	9	장년부	최정희(18)					

※ 순회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33호 가족 등록록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

교회소식

김교양	김정환	정현정	전도환	21교	15교	17교				
김영은	이달욱	장철환A	김승은	함광주	● 예전도사					
구복희	신현정	김정환B	김세희A	17교						
김영진	안지현	김진근	김광호	● 현직도사						
김종신	김민정	신국환	전영호							
정민기	김정환	김정환	송수경	김기영	김진석	홍순애	이옥주			
			15교	15교	3교	2교	김말자			
전진배	서영석	구재환	송수진	김희희	장기복	최문신	전은희			
		서교도사	15교	6교	2교	12교	김자라			
유상태	박상대	김규석	신정환	김기영	이복순A	류원희	한성진			
			15교	2교	15교	11교	임태주			
임복섭	이상식	오은도	양가수	김민희	유지영	이성B	전영희			
		15교	15교	4교	2교	15교	이혜수			
김철환	김진태	김종호	장철환B	정태호	황순만	김경호	강옥련			
이영환	김정환	김정환	15교	15교	13교	24교	1교			
이세영	이성식	장철규	이보신	이성배	● 전임목회자 서순성 김원섭					
김기호	조종민	21교	2교	15교						
김기호	김교양	2교	2교	2교	● 전임목회자 서순성 김원섭					
					● 전임목회자 서순성 김원섭					
					● 전임목회자 서순성 김원섭					
					● 전임목회자 서순성 김원섭					
					● 전임목회자 서순성 김원섭					
					● 전임목회자 서순성 김원섭					
					● 전임목회자 서순성 김원섭					
					● 전임목회자 서순성 김원섭					
					● 전임목회자 서순성 김원섭					
					● 전임목회자 서순성 김원섭					
					● 전임목회자 서순성 김원섭					
					● 전임목회자 서순성 김원섭					
					● 전임목회자 서순성 김원섭					
					● 전임목회자 서순성 김원섭					
					● 전임목회자 서순성 김원섭					
					● 전임목회자 서순성 김원섭					
					● 전임목회자 서순성 김원섭					
					● 전임목회자 서순성 김원섭					
					● 전임목회자 서순성 김원섭					
					● 전임목회자 서순성 김원섭					
					● 전임목회자 서순성 김원섭					
					● 전임목회자 서순성 김원섭					
					● 전임목회자 서순성 김원섭					